

취진 2차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을 제작한 담당 PD 박진홍입니다.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제작의도와는 달리 한계점으로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감과 함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방송에 드러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이나 설명을 해드려야 할 세부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해를 구하고자 각론상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문서는 '그것이 알고싶다' 팀의 공식적인 문서라기보다는 담당 PD 개인의 서한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의도는 우선

1)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2000년 처음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화되지 않거나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상을 고발하고,

2) 성적 자기 결정권을 타의에 의해 빼앗기고 있는 장애여성의 현실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물론 장애인도 계시고 비장애인도 계시지만, 주로 장애인의 현실에 무관심한 비장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는데 더 주력했다는 것도 미리 전제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셨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의도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사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건에 대해 안 것은 전주상담소장이신 박미경 소장님을 통해서입니다. 박소장님은 일반적인 경찰관과 달리, 장애여성의 피해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자발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한 형사의 얘기를 전하면서, 본인이 개입하게 된 것도 그 형사가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던 중 도움을 요청해온 경우라고 하셨습니다. 담당형사는 낙태 수술을 주선해줬던 보건소장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를 만나보게 됐는데, 가정 형편도 어렵고, 장애인 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았습니니다.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 장애인이지요. 저희는 10월2일쯤 담당형사인 완주 경찰서의 형사를 만났는데, 장형사는 마을로 취재를 가려는 저희에게 가해자 형제들이 알게 되면 돈을 주고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장형사도 우연히 알게 된 사건을 직업정신으로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박미경소장님을 만났고, 장애여성의 특성을 알아가면서 이전보다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받아쓰기 부분에 대해

담당형사는 검사나 판사가 장애여성에 대한 이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 장애여성'이고, 가해자들은 명백히 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

해 여러 가지 입증할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비장애인이 잠깐 얘기해봤을때는 ■■■는 말을 좀 아기같이 한다는 것 말고는 정신지체 같아보이지도 않거든요. 게다가 장애인 등록도 되어있지 않았고요. 장형사는 그래서 학적부를 떼어서 ■■■가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피의자 검거직후 ■■■에게 장애인 등록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희도 방송을 통해 ■■■가 장애여성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자 했고, 받아쓰기를 시킨 것은 그런 이유때문이었지요.

질문이 노골적이고 자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또한, 몇 번을 했느냐는 질문을 한 것은, 가해자들이 한 다섯 번이라고 답했으나 수사과에서 여러 해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폭행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을 듣고자 한 것은 비장애인이 다수인 시청자를 의식한 것이었습니다. 혹여라도 비장애인인 시청자들이 피해여성들의 피해사실에 대해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와는 취재과정에서 한 세차례 만났기 때문에 저희와 거리감을 어느 정도 줄인 상태였고, 피해장소에 동행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죄 사실에 구체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도, 성폭행 자체에 관한 질문이나 구체적인 사실 표현은 VCR1,2,3 이후에는 전면 배제했습니다. (통상 영상물로 구성된 꼭지를 VCR1,2..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정적으로 보인 부분에 대해

가해자들을 검거한 것은 10월 14일, 저희 방송일은 18일, 더빙이나 녹화등 사후 일정을 생각하면 대단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저희는 검거된 가해자 이외에도 마을 사람 여럿이 헤영이를 성폭행했을거라 추정합니다. 더 취재할 시간이 없어 거기서 멈췄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건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데 더 주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담당 PD의 그런 느낌이 방송에 좀 과하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극적으로 비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신지체장애여성의 성폭력이 장애여성성폭력으로 일반화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합니다. 먼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단, 그런 점을 의식해서 VCR4에서 시각장애여성이 성추행을 당하고도 경찰의 무성의로 모욕을 당한 사실을 통해 정신지체든 기타 장애든 장애여성 일반에 대한 물이해를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또, VCR5에 나온 63세 성매매 장애여성 또한 언어장애와 소아마비로, 정신지체에만 물리는 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멘트에서도 정확히 '정신지체장애여성의 경우...'라는 전제를 통해 그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했고요. 한가지 더 해명하자면, 다른 유형의 장애여성 피해자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에게 협조해 주셨던 성폭력상담소 관련자들께서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애여성 개인에게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지적에 대해

좀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우선,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지체 장애여성의 경우, 가정에서 교육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취재하다보니 실제로 많았습니다. 또, 그런 가정에는 가족가운데 정신지체장애인이 또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현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가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방치되고 교육받지 못하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성폭력 문제의 원인이 이런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장애여성, 특히 농촌지역 장애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그 배경으로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의 원인을 장애여성 개인의 상황이나 무지등에 전가했다는 귀책의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사건해결위한 구체적 정보가 없고 사건나열에만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희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는 일차적으로 2000년 사건 이후에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일반의 경우 그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하는데 있었습니다. 장애여성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의 장애인 전반에 대한 인식문제, 장애남성과 장애여성에 대한 성교육을 통한 성행동 인지와 성폭력 예방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과정상의 문제, 그리고 전문 상담인력에 대한 국가 지원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거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상의 문제만 언급했던 것이고, 프로그램 내에서는

1)경찰관의 장애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적했고, 2)별도의 조사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과, 3)조력자의 배석을 의무화해야한다는 것을 제기했으며, 4)상담인력 부족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사례는 무작정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VCR1,2에서는 정신지체장애여성에 대한 최근의 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과 정신지체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전달하고자 했고, VCR3에서는 범죄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확보가 되지 않아 가해자가 검거되지 못하는 상황을 전달한 것이죠. VCR4에서는 경찰의 몰이해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했고, VCR5에서 나온 시각장애인과의 성매매여성은 '성추행-성폭행-불임시술-성매매' 등의 장애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을 연관짓고자 제시된 예입니다. VCR6은 바로 앞 스튜디오에서 MC가 말한대로 '어쩌면 우리는 장애여성들도 결혼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라고 비장애인 시청자들에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행복을 강탈당한 장애여성의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연락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것은 제 불찰

이었습니다. 방송에 그런 것들도 전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드립니다.

생리에 대한 취재에서 장애여성 당사자의 의견이 배제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 그 부분에 대해 더 깊이 취재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이유때문인데, 첫째는 장애여성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족에 의해서도 박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한가지는, 비장애인 시청자들에게 감성적으로 먼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 또한 우리 딸들이라는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여성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성에 대한 생각을 들어왔고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야만적인 현실을 적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장애여성 당사자들을 몇 분 인터뷰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다지 많은 분들을 섭외하지 못했음도 편집과정에서 배제하게 된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동정적인 시선으로 봤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만, 마지막 영상구성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장애여성들도 예쁜 우리 딸들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용한 시도 장애여성이신 장진순씨의 작품 '딸들에게'라는 시입니다. 시에서 말한대로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무도 곱구나'라는게 제가 전달하고자 한 의도였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제기하셨던 문제들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본의와 달리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여전히 부족하고 저같은 방송 종사자들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의도와 달리 지적하셨던 문제로 나타나게 된 많은 이유가 제가 제작능력이 부족했던 탓으로 이해하시고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